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 노동부·수원지검과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공동 설명회' 개최

윤진현 | 승인 2022.01.13 17:54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첫 번째)이 13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김덕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왼쪽에서 두 번째),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MOU를 체결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두 기관과 함께 전국 최초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이번 설명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열렸다.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사례 연구,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세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은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법령의 주요 내용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의 사례연구는 ▶법 개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과거 사례들에 법 적용이 이뤄질 시 변동 사항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공단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체계 구축방법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으로 설명했다.

기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입법 취지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김덕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등의 기관 관계자들과 법 적용 대상 사업주·사업장 소속 안전관리자 등 총 209명이 참석했다.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김덕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도 "법 시행이 재해율 감소 및 재해예방 노력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까지 세 기관이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이날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터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진현기자

윤진현 yj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